

무안, 서남권 경제수도·글로벌 에어시티로 키운다

전남도, 무안군 정책비전투어

K-푸드 산업 메카·동북아 거점공항 등
전남연구원, 미래 발전 9대 비전 제시
김영록 지사 “무안군 발전 전폭 지원”

무안군을 ‘글로벌 에어시티’로 육성하고 SOC·산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서남권 경제수도’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발전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15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김산 군수는 환영사에서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무안의 미래를 변화시킬 과제들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비전투어가 균형과 상생의 발전 전략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안군 역시 도정에 발맞춰 전남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무안군 정책비전 투어에 참석, 정책 현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농어촌과 신도시가 어우러진 무안은 전통산업과 첨단미래산업이 함께 발전해 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라며 “전남의 행정수도 무안이 서남권 경제수도이자 글로벌 에어시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이날 ‘하늘과 바다, 생명과 미래’를 잇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무안’을 슬로건으로 미래 핵심 9대 비전을 제시했다. 9대 비전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첨단

산업 유치 ▲공공 주도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첨단 K-푸드 플러스 산업 메카 도약 ▲글로벌 해양생태도시 조성 ▲인구 20만명 도농복합도시 완성 ▲서남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웰니스 생태도시 구축 ▲무안

도자 명품화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 ▲핵심 SOC 구축 등이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회에서는 무안군민, 김영록 지사, 전남도 실·국장들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점복 일로읍 망월1리 이장은 “오룡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다”며 “출퇴근 시간 남약 IC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죽산 IC와 연결되는 군도 49호선 개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남약오룡지구 진입도로(IC) 신설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군도 49호선 확포장 사업까지 남약오룡지구 IC 사업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귀만 한국4H무안군본부 회장은 “무안은 전남 공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하지만 공 선별 시설이 열악해 농민 불편이 크다”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공 선별시설을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올해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임대농가계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안군을 통해 내년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시원 기자

2년 전 파행→극진한 환대...무안 여론 변화 실감

군공항 이전 논의 진전에 ‘화기애애’
金지사 “감명...무안 발전 위해 땀것”
김산 군수 “3대 선결 조건 힘써달라”

최근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15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 방문이 무안군과 군민들의 환대 속에 마무리됐다. 2년 전 김영록 지사의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가 군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들의 저지로 파행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안지역 내 여론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김영록 지사는 15일 오후 2시50분께 무안군 정책비전투어 장소인 송달문화예술회관 입구에 도착했다. 김 지사 도착 전부터 마중을 나와 있던 김산 군수는 활짝 웃으며 악수를 건넸고, 김 지사가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군민, 공무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정책비전투어 행사에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재작년에 못 받은 환대를 오늘 2배로 해 주신 거 같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따뜻한 환대에 오늘 크게 감명을 받았다”며 “군공항 이전 때문에 무안군과 전남도 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치열한 협의 끝에 무안군은 물론, 전남도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곧 대통령실 주도 6자 TF가 열리는데 무안군민이 원하는 바대로 잘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물론, 김산 군수님과 함께 대통령실에 더 요청해서라도 무안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뛰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산 군수도 “정책비전투어 자리를 만들고 우려한 부분도 있었지만 군민들이 받아들여주고 지사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운출 미팅 이후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제안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가지 부분은 지사님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군수는 또 “이재명 정부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 같은 약속이 무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양시원 기자

도의회 예정위, 내년 도예산안 153억 증액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 12조7천2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천587억원(1.3%)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4천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440억원(0.1%) 감소했다. 전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71건 131억원을 감액했고, 151건 총 284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8건 총 37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3건 37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 의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안전·관제시스템 고도화

내년도 정부 예산에 19억5천만원 반영
2027년까지 고속·대용량 LTE-R 구축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차세대 철도통신망인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터널 등 통신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도 4세대 무선 통신망인 ‘LTE-R’이 터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비로 국비 19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에 따라 LTE 기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되는 통합 철도무선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철도통합무선망 도입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사용하는 음성 중심의 무선통신 시스템(VHF, TRS)을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망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방식은 음성·저용량 문자 중심으로 터널 구간 등에서 통신 장애 발생 우려가 있었지

만 철도통합무선망이 구축되면 고화질 영상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특히 실시간 CCTV 영상 관제와 사고 현장 영상 공유가 가능해져 화재, 테러, 응급 환자 등 긴급 상황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 소방·경찰 등 공공 안전기관과 음성·영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현장 대응과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대구·인천·대전 등 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지속 건의해왔다. 현재 광주교통공사에서 구매·설치 및 감리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관제시스템과 본선, 20개 역사, 차량기지 2개소, 열차 2편성 등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에 걸쳐 구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운전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고속·대용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